



남광주시장의 설 대목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을 앞둔 15일 오전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완구 오늘 표결 정국 최대 분수령

與 단독 표결 땀 정국 냉각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는 야당의 본회의 연기 요구로 여야가 합의했던 표결 일정보다 나흘이 늦춰진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인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후보자 인준안이 표결에 부쳐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판가름이 나게 됐다.

<관련기사 5면>

일단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인준안을 가결하는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인 158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리 혐의에 구속된 송광호·조현룡 의원과 이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155명 가운데 불참자나 이탈표는 극소수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반대 의견 표현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본회의 불참 또는 참석 후 이석하는 '소극적 반대'를 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 투표에 참여, 이탈표가 나온다면 문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있다는 점에서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 부결을 노려보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5석을 보유한 정의당은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행보에 사실상 보조를 맞추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되면 불참하되, 새정치연합이 참석한다면 함께 표결에 참여, 반대표를 던진다는 복안이다.

16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이 후보자가 총리직에 오르면 정국은 급격하게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강경파가 지도부를 장악한 새정치연합은 '반쪽 총리',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강경한 대외 투쟁 기조로 급전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제 활성화 법안과 공무원 연금 개혁안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각종 개혁안의 입법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 극단적인 상황인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과 야당의 표결 불참이 설 명절 민심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선 KTX 개통 코앞...준비 안된 송정역



광주 시내버스 노선 1개 신설·전남권 연결 시외버스 없어
광주시·코레일 능자 행정...복합환승센터는 착공조차 못해

호남고속철(KTX) 개통이 코앞(4월1일 예정)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시와 코레일의 더딘 행정 때문에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이용객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 연계체계 등은 엉망이고, 이용객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송정역복합환승센터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코레일은 송정역 새역사 업무개시를 앞두고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식의 자화자찬만 늘어 놓고 있어 시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 광주본부는 오는 17일부터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이 신역사로 이전해 영업 및 역무를 시작한다. 코레일측은 지난 9일 장애인단체, 고객대

표 등과 함께 신역사에 대한 사용자 사전점검에 이어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송정역 신역사 건물은 오는 4월1일로 예정된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빛고를 광주이미지를 형상화한 모습으로 지어졌으며, 전체면적 4858㎡ 규모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자가용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장 공사도 진행 중이라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광주시와 코레일은 호남선 KTX가 개통되면 송정역의 1일 이용객만 현재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이용객을 맞이할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비롯한 편의시설 신축 등은 지지부진하다. 광주시의 대중교통 연계 대책은 시내버스 노선 1개 신설과 마을버스 노선 연장 뿐이다. 전남권을 연결하는 시외버스는 아직까지 단 1개 노선도 없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관련 대책으로 내놓은 송정역 인근 해남, 영광, 안동, 강진 등 전남 서남부권 시외버스 정류장 신설계획도 또 다른 잡음만 예고하고 있다. 현재 광주 남구 방향으로 운행하는 서남부권 시외버스 중 일부를 송정역 쪽으

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기존 이용객의 시간과 요금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송정역 옆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아닌 정류장 한 곳을 만든다고 해서 이용객의 편의가 개선될지도 의문이다. KTX정차역에서 배제되는 광주역 인근 동구와 북구지역 시민의 불만이 높다. 송정역과의 접근성을 보완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시설 확충도 제자리 걸음이다. 호남권 교통·물류의 메카 역할을 맡게 될 송정 복합환승센터도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착공했어야 하지만, 부지 확보 문제로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임 주중대사에 광주 출신 김장수씨

수교 23년만에 첫 군 출신

정부는 신임 주중국 대사에 광주 출신인 김장수(사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하고 올 상반기 정기공관장 인사에서 정식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권영세 현 대사의 후임으로 부임하게 될 김 내정자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3년 가까이 만에 처음으로 군 출신으로 중국 대사를 맡게 됐다. <관련기사 2면>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 중요성을 감안해 중랑급 인사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김 내정자가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을 역임해 안보 분야에 전문적 식



견이 있고 중국의 주요 인사와 접촉경험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내정자를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일고 출신으로 육사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센터의 조동대처 문제를 둘러싼 논란 끝에 5월 전격적으로 물러난 뒤 1년도 안돼 다시 우리 외교의 핵심 포스트인 중국대사로 복귀하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학부 추가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육학과, 음악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유아교육과, 실용음악학과
원시합수 ▶ 2, 16 ~ 22(월) 062)605-1114
대학원 추가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원시합수 ▶ 2, 9 ~ 23(월) 062)605-1115

- 옛 도청 분수대 보수 어떻게... ▶ 6면
- 또 문화원류를 찾아서
- 말레이시아 '바나나 의복' ▶ 18면

공장매각

도장·도금 공장 매각 및 임대
공장부지 18,549평·건물 3,000평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예리리 1241-74
현황 아연도금 연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1메가)
토지면적 61,321㎡(18,549평)
공장면적 10,000㎡(3,025평) (아연도금 공장 1,000평, 도장공장 2,000평)
물류면적 51,674㎡(15,631평)
보유설비 산처리/도금 설비, 환경설비, 표면처리 설비, 크레인 설비, 전기 950kw

매각 또는 임대 협의 가능
담당자 010-6318-9611